

함께 걷고 쓰레기 주우며 생명 소중함 되새겨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⑤

생명나눔 걷기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서울 도심 속 숲길을 걸으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도 아름답게 만드는 행사가 열렸다.

불교계 유일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5월 25일 서울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5회 생명나눔 걷기명상&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

생명나눔 걷기대회는 2008년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걷기대회는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주변 환경까지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방식으로 진행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 명신 스님, 법륜 스님, 혜공 스님, 법일 스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기홍 BBS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경림 부회장, 성명용 부회장, 가수 진미령 홍보대사, 김남명 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장, 전보현자 불암사 신도회장, 정홍권 남양주 광동중 교장, 김일동 광동고 교장, 광동중고 학생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환영사를 통해 "웃음의 즐거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남산 숲길을 걸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의 발자국이 될 것"이라면서 "생명나눔의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서로 배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걷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플로깅 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플로깅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행동만이 아닌 자연보호와 우리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일"이라면서 "생명나눔과 함께 환경보호의 큰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발원문 낭독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

생명나눔, 5월 25일 걷기 명상대회
1000명 동참자 동국대–남산 거닐어
쓰레기 주우며 환경보호 일깨우기도
자살예방 퀴즈 등 체험부스도 '활기'

고 다짐했다. 박종우 홍보위원장의 힘찬 징소리와 함께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 4km구간을 걸었다. 참가자 100여 명은 남산 숲길을 거닐며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아갔다.

일찍 찾아 온 더위로 걷는 동안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박주아(남양주 광동고 1) 학생은 "생명나눔뿐 아니라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참했다"면서 "걷기뿐 아니라 각종 공연 관람과 체험활동으로 즐거운 주말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지인의 소개로 걷기대회에 동참한 서원모 씨도 "생명나눔의 가치를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보였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도 장애인 20명이 동참, 봄을 즐겼으며 대한적십자사 헌혈봉사회 전국협의회에서도 봉사자 20여 명이 헌혈 홍보와 함께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범을 보였다.

걷기대회 회향 후 만해광장에 다시 모인 참가자들은 마하무용단의 전통 북공연,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태권도 시범단의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를 즐겼다. 공연 말미에는 걷기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진행, 자전거와 노트북 등 풍성한 선물을 나누며 나눔의 정을 더했다.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은 폐회사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산 숲길을 함께 걷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만해광장 일대에 마련된 20여 개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압화 체험, 보석 십자수 만들기, 마하무용단과 함께하는 전통북 두드리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이 이끄는 압화체험 부스와 포토부스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웠던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15회 생명나눔 걷기명상&플로깅'에는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발원했다.



마하무용단의 전통 북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축제의 흥을 돋궜다.

제1회 생명나눔 자선골프대회 성료

5월 27일, 12팀 60여 명 동참
참가비, 소외 환아 치료비로

소외계층 환아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한 '제1회 생명나눔 자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5월 27일 가평 베네스트GC에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골퍼들이 라운딩을 하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 불우한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을 위해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 설재근 대외협력실장, 가평 축령사 주지 설봉 스님, 국군 예비역불자연합회,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 박대섭 회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및 임원진, 광동중고 총동창회 등 총 12개팀 60여 명이 동참해 아름다운 나눔의 대결을 펼쳤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선 골프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존 비용에 기부금을 사전 입금한 후 대회에 참가했다. 자선행사라는 취지에 맞게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대회가 진행됐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남자부·여자부 우승, 메달리스트상, 롱기스트상, 니어리스트상, 다버디상, 다파상, 다보기상, 행운상, 우정상이 주어졌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원사업 중 하나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자선골프대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